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지명하여 부르심을 중심으로

김은미*
김계연**
김용태***

논문초록

실존적 소외는 존재가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실존적 조건 중 하나이자 현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소외에서 벗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실존적 소외를 경험하며 그리고 실존적 소외로 인해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 역시 실재한다. 그러나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실존적 소외의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안에서의 존재와 실존의 방식을 나타내는 메타포인 이사야 43장 1절의 “지명하여 부르심”이 가지는 실존적 의미를 고찰하고, 존재를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 명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실존적 소외를 이해해 보았다.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새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실존적 소외에서 이미 벗어났지만 여전히 실존적 소외를 경험하는 존재적 특성을 지닌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존재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여,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외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적 소외에 직면하도록 돕는 동시에 일차적, 이차적 소명을 확인하도록 돕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독교인이 실존적 소외에 직면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서 확신을 가지고 일차적, 이차적 소명에 집중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실존적 소외, 실존치료, 지명하여 부르심, 이름, 기독교상담

* 김은미,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박사과정

** 김계연,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박사과정

*** 김용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

2017년 2월 5일 접수, 3월 9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I. 서론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이다.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은 언제나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날이 없고 반복하거나 되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 이렇듯 인간은 날마다 새롭고 특별한(unique) 삶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혼자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 존재의 삶의 경험은 한 존재만의 것이고, 이런 존재적 현실이 결국 실존적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세상과 타인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 될 수 없는 큰 간격과, 인간과 세상과의 분리(Yalom, 2007: 430)를 항상 경험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스스로 떠안아야 할 뿐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 할 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소외의 모습이다. 실존적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고독에 대한 방패로 사용하여 지배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부적응적인 대인 관계를 맺게 된다(권석만, 2012). 실존철학은 실존적 소외를 직면하고 수용해야 할 존재의 특성으로 보며(Cooper, 2014: 39), 실존치료에서는 소외 상태를 인정하고 단호하게 맞서서 타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감으로써 소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권석만, 2012: 441). 이렇듯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로 보는 인본주의적 실존주의는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 채 그 대안만을 제시한다. 실존적 소외에 대한 현상적 이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이와 유사하다. 실제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단독자¹⁾로서 홀로 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외의 원인을 원죄로 인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질에서 실존으로 전이된 상태(Tillich, 1988:59)로 본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실존주의와 차이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세상과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는 물론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기(Tillich, 1988: 84) 때문에, 인간은 존재적, 영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실존적 소외에 대한 톨리히의 해결

1)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인간을 하나의 특정한 주관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에 단독자라는 개념을 쓴다. 『철학사전』(서울: 중원문화, 2009) 발췌

책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있다(정성민, 2004: 258) 결국 실존적 소외의 해결의 결과에 대해 실존치료는 부적응적 대인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신학은 하나님과의 상호의존관계의 회복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존적 소외의 해결은 실존치료에서나 신학적으로나 관계성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존적 소외는 필연적으로 자신 그리고 타인을 포함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기독교상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된다(송기득, 1986; 정성민, 2004; 최홍춘, 2004). 지금까지의 실존적 소외에 대한 연구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기독교상담학적 연구는 소수로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김미진, 2012).

기독교상담적으로 실존적 소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존 또는 존재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존재를 그저 세상에 내던져진 근원 없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보는 성경적 관점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인 ‘나 혹은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존재의 수만큼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그 대답 중 하나는 이름이 될 수 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을 구분하여 지칭하는 기능이 있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이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전제가 된다.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서 지명하여 부르심은 이름으로 부르심(summoned you by name-NIV)이다. 구약 시대에 이름은 본질적 존재, 즉 실존적 의미를 내포(기독교대백과사전, 1980: 1149)하였다. 이름이 가진 실존적 의미와 관계성을 고려할 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구절은 이름 불리워진 존재의 실존 및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성경적 메타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존재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명하여 부르심을 중심으로 성경적 실존에 대해 고찰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실존적 소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실존적 소외

1. 실존주의와 실존적 소외

실존적 소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를 경험하는 존재에서 출발을 해야 하겠지만, 존재와 실존은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존재’는 눈 앞에 있는 자명한 개념인 동시에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박찬국, 2014: 22-26). 하이데거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됨을 강조하였고, 실존은 “자신이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현존재(Da-sein)의 존재방식”(박찬국, 2014: 37)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존재는 문자적으로는 ‘거기 있음’의 의미도 있다(Seligman, 2001: 238). 실존주의 또는 실존철학은 개개인의 존재를 강조하는 특성 상, 마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존재를 자신의 존재 양식이 되는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세계-내-존재(이상현, 강기수, 2004: 9)로 보았다. 세계-내-존재는 공동 세계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박찬국, 2014: 171). 또한 부버는 실존이 자기는 물론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Buber, 2004: 17, 62).

실존치료 접근법들은 풍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Cooper, 2014: 19-21), 공통되는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본래적 존재’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Deurzen, 2002: 25). 본래적 존재는 ‘실존하는 나’로서 ‘각자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를 존재해야 함”(이상현, 강기수, 2004: 14)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진정한 만남이 전제 되어야 한다.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진실성과 진정성(genuineness, authenticity, integrity, congruence)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상담자의 실재함(presence)이 중요하며, 상담자의 실존과의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즉 실존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자유롭게 자기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Schneider, 1998: 111-112, 118).

2. 실존치료에서의 소외의 문제

상담학적 관점에서 실존적 소외는 타인과는 다른 단독자로서의 자신으로 존재함과 자신에게서 자신의 일부라고 여겨지지 못하는 부분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김용태, 2007: 100-125)이며 내가 나를 버릴 때 일어나는 것이다(정명자, 1994: 215-236). 이렇듯 인간은 내적인 혼란을 간직한 존재이자, 세상에 홀로 와서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낀다. 임상적으로는 의미 있는 관계형성에 실패하면 결국 분리, 비인격화, 소외, 그리고 고독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고 본다(Corey, 1997). 그러므로 상담적인 관점에서 실존적 소외는 자신과의 분리인 개인내적 소외와, 타인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적 소외를 포괄하는 근원적인 소외를 의미한다(Yalom, 2007: 428). 알룸에 의하면 개인내적 소외는 인간이 자기 느낌이나 욕구를 억압한 결과로 나타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지 못함을 뜻한다(Yalom, 2007: 428). 대인관계적 소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로움이며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소외다. 상대방과 너무 융합되어 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거나 비사교적인 성격이거나 갈등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경험한다. 실존적 소외는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하는 단독자라는 존재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내적 소외와 대인관계적 소외는 불가피하다. 존재가 실존적 소외를 자신의 존재의 한계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이 혼자가 아닌 듯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외로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밖으로 밀어내며, 최대한 가벼워지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존적 소외를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고 병리적인 관계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룸은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상황을 직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Yalom, 2007: 441). 어찌할 수 없는 실존적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대하는 인간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직면과 수용을 통해 실존적 소외를 회피하는 고통을 완화시킬 뿐, 실존적 조건인 소외라는 고통 자체에서는 벗어나게 해 줄 수는 없다.

한편, 무신론적 실존철학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알지 못하는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고 실존치료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Cooper, 2014: 48-49). 불안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는 각 실존치료 접근법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재(being)와 비존재(non-being)에 대한 불안, 즉 존재론적 불안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내적 소외도 비존재의 불안의 한 측면이고, 관계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존재를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함도 비존재의 불안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실존적 소외는 이러한 비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는 죽음, 자유, 무의미 등의 다른 실존적 조건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의 순간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고, 자유가 주는 선택과 책임의 무게도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내적, 관계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면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실존적 소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존치료자들은 실존적 소외에 대한 해결책을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존재 분석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의 전반적인 영역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즉,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존재적 측면, 즉 세계-내-존재로서의 실존을 수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Cooper, 2014: 97).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는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격려해야함을 강조하였는데 실존의 의미는 관계성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Frankle, 1967: 140). 영국의 실존분석학파는 네가지 영역; 물리적, 사회적, 개인적, 영적 차원에서 내담자의 세상을 탐색하여 삶과 본래적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론은 내담자가 실존적 소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타인에게 다가가함으로써 실존적 소외가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III. 지명하여 부르심과 실존

1. 실존주의와 이름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고,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 혹은 ‘당신은 누구인가?’란 실존적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이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다. 존재에 대해 알고 있거나 존재에 특정 명칭이 붙여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즉, 이름 또는 이름 부름은 이름을 부르는 존재와 이름 불림을 받는 존재의 관계성을 내포한다. 몇몇 학자들은 김춘수의 시 ‘꽃’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다(이진홍, 1981). 윤석성(1997)은 “서로의 존재의 본질을 꿰뚫은 전자로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대답할 때 서로의 ‘꽃’이 되고 ‘눈짓’이 되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존재들은 서로 존재의 본질에 합당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바란다고 보았다. 또한 김춘수의 ‘꽃’의 한 구절인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도 와서 꽃이 되었다’의 의미를,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부버의 나-너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옥동, 2002: 92; 안치용, 2008: 102; 홍성훈, 2009: 84). 이는 부버가 이름을 ‘만남’(Freidmann, 1988: 314)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Buber(2004)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름은 나와 너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너’다. 그는 하나님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될 때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Friedman, 1988). 부버가 이름을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이자 ‘만남’으로 봄과 비슷하게 크립키(Kripke)는 각 이름에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칭(naming), 즉 이름의 문제를 다룬 철학자로, 한 사람이 특정 인물과 그 인물의 이름을 알고, 그 인물을 지칭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필연성이 따른다고 주장한다(Kripke, 2014: 35-36).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진 존재가 결코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는 필연성 또한 따른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름은 존재를 지칭함과 동시에 실존의 본질을 나타내는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

2. 구약에서의 이름

구약 시대에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자, 정체성과 운명을 포함하는 실존에 대한 묘사였다. 또한 이름 부르는 자와 이름 불리워지는 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성 및 상호적 관계와 실존적 만남을 의미하였다. 첫 사람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일은 이름 짓기였다(창 2:19-20).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해 주었고, 그들을 자신의 세계 안에 편입시켰다(Westermann, 1987: 20).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그 사람을 제대로 설명해(true description) 준다고 보았고,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제대로

로 알고 있다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의미하였다(Knight, 1984: 59).

구약에서 이름은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을 포함하였으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름이 가진 뜻의 성취가 보장됨을 뜻하기도 한다(Wenham, 1991: 94).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다.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12:2)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 열방의 아버지, 즉 열방을 위한 축복의 존재라는 소명을 주셨다(하경택, 2011: 59).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여주인에서 왕비 혹은 열국의 어머니로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소명을 확고히 해 준다(하경택, 2011: 58-59). 여기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엘 샤다이로 소개하신다(창 17:1).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며, 샤다이는 ‘(자아) 충족적인 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Tov주석, 1992:70-71).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존재를 설명함과 동시에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리라는 약속과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다.

로세프는 ‘신은 이름이 아니지만 신의 이름은 곧 신’이라는 찬명론을 옹호하기 위해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이름의 철학을 주창하였다(손명곤, 2014: 500). 그는 “이름은 본질(의미)의 형상적 가시화이자 신체적, 조소적 구체화”(손명곤, 2014: 514)라고 하였고, 현상, 의미, 존재들은 이름이 붙여질 때 즉, 언어화가 될 때 구체화되므로 “신의 이름은 신과 인간이 조우하는 영역”(손명곤, 2014: 502)이라고 보았다. 창세기에는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ex. 4:26, 13:4)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예배를 의미한다(Wenham, 2001: 281). 앞서 나온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자 친밀감과 상호관계성을 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이므로, ‘신의 이름은 신과 인간이 조우하는 영역’이란 로세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박태범은 구약의 신명(神名) 계시에 대해 논하면서 이름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와 의 진정한 대화, 상호 관계, 친교를 통한 만남을 전제하여 확립한다고 주장하였다(박태범, 2002: 103-132). 압록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마친 야곱은 그에게 이름을 묻는다(창 32:29).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분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하경

택(2003: 88)은 주장한다. 야곱은 씨름을 한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창 32:20)는 의미의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야곱이 이름 묻기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한 후, 그를 대면하여 보았다고 표현했으므로 이 대면은 실존적 만남으로 볼 수 있겠다.

3. 지명하여 부르심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로 끝맺는다. 히브리어 해석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심은 그 사람을 상세하게 앎(intimate knowledge, Knight, 1984: 59-60), 즉 전존재(whole being)를 알고 부르심을 뜻하며, 이름 부르고 불리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성서대백과, 1980: 833). 김경행(1990: 395-398)은 지명하여 부르심에 대한 강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심은 축복하기 위함이고,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이며, 친구 됨(친밀한 관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심은 다음과 같이 축복받은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적 특성,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을 보여주는 성경적 메타포이다.

첫째, 지명하여 부르심은 축복을 의미한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하신다(창 32:29). 하경택(2003)은 이를 행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였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게 함이고, 각 사람을 오직 한사람으로, 그의 이름으로 불러서 축복하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존재가 축복받은 존재임을 나타낸다.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창 12:1-9)은 큰 민족의 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땅의 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속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오늘을 사는 믿는 자에게도 약속되었다(김진규, 2012: 9-39).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심의 축복은 각 존재의 구원이자, 각 존재가 열방의 구원을 위한 통로의 역할로서의 축복을 의미한다.

지명하여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에 있다(Goldingay, 2005: 189). 구약적 이름의 의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름에는 미래의 운명과 성취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시에는 이름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최고의 목적 외에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소명(calling)이 있다. 임현만(2009)은 그리스도인의 이차적 소명이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차적 소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불러주심은 자녀로 부르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Knight, 1984). 히브리 본문은 도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רַמְשֵׁב יְהוָה ק’ *karathibeshimcha* -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를 도치하면, ‘רַמְשֵׁב יְהוָה ק’ *karathichabishmi* - 너를 나의 이름으로 불렀다.’가 되며 나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소유를 뜻함과 동시에 같은 이름, 즉 가족 유사성 및 직계 가족을 뜻한다(Motyer, 1993:331). Dreifuss와 Riemer는 아브람의 이름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H가 들어가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 존재의 나뉘질 수 없는 부분 즉 “자기” Self가 되신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김명현, 2011: 6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가 되심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지명하여 부르심은 구속 및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확립을 확증한다.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로 끝나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네 이름으로 부른다’는 관계성의 반복적 강조가 잘 나타난다. ‘내 것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43장 1절에 유일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명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속(회복)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칼빈(2003: 238-250)의 주장과 같이 개인 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반의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이자,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심은 ‘하나님

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로 볼 수 있다.

IV.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1.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와 실존적 소외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해 상담자들에게 이론적 입장이 필요하다(권석만, 2012: 38). 내담자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 과제는 내담자를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즉, 인간관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이다. 이론의 접근법과 철학적 관점에 따라 각 이론의 인간관은 달라진다. 앞 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지명하여 부르심은 이름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적 만남의 메타포이자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실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된다. 이름이 실존적 만남을 의미하므로 이름 불리워진 존재는 이름을 부르는 존재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 이심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신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표현되는 예배, 즉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

둘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하나님의 거하심(presence)을 내포하는 존재 방식을 가진다. 지명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즉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이름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presence를 의미하는데 presence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존재, 현현을 뜻하고 우리 속에 거하심을 뜻하므로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Elwell, Beitzel, ed., 1988: 1751-1752).

셋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이름은 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다. 실존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답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존재의 규정은 하나님이 하신다(Coe & Hall, 2010: 231).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상은 야곱이자 이스라엘 백성이다. 한 사람이면서 한 백성이다. 하나

님은 백성 모두를 부르셨지만, ‘오직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고유한 존재다. 이는 다른 존재로 대체 될 수 없는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의 특성은 실존주의의 관점(Cooper, 2014: 39)과 일치한다.

넷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을 지니고 살아간다. 일차적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고, 이차적 소명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의미한다.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삶은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개인 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반의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이자,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틸리히(1956: 87)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즉 하나됨을 통해 소외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즉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서의 자각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근원적 실존적 소외는 해결된다. 그러나 존재를 ‘창조-타락-구속-새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이해해야하므로(최은영, 2015: 61-68) 완전한 실존적 소외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실현된다(정성민, 2004: 259).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실존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본질과 실존의 분리, 즉 소외를 정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정성민, 2004: 259). 예수 그리스도의 새존재에 참여(participant)함으로써 실존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실존적 소외는 해결된다.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이미 새존재에 참여한 존재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는 새존재에 참여함로서의 존재는 실존적 소외 상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현실은 실존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고전 5:17)임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골 3:9, 엡 4:22)고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기독교상당이 주목하고 개입해야 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 근원적인 소외 상태가 새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체화(embodied)되어 살아가야한다. 또한 그러한 존재의 현실과 그로 인해 부딪혀야 하는 소외의 경험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새존재에 참여한 존

제이자 실존적으로 소외된 존재로서의 특성 모두를 포함한다.

2.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앞서 인간을 실존적 소외가 해결된 새로운 존재와 실존적 소외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존재, 즉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양쪽 측면을 모두 존재적 특성을 가진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 보았다.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와 기독교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 볼 수 있고, 그 존재의 기반(ground)은 하나님이다(Tillich, 1956: 156). 즉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근원적인 실존적 소외가 해결된 새로운 존재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볼 때 실존적 소외가 해결된 새로운 존재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실존적 소외를 경험한다.

셋째, 지명하여 부르심은 존재를 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내적 소외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존재를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자신의 실존 및 존재의 의미에 대한 혼란과 비존재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개인내적 소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넷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일차적 소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 거한다는 확신으로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 누구와도 공유될 수 없고 누구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실존적 특성은 지명하여 부르심과 실존주의가 공유하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사람의 존재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기독교 상담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명하여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해주는 실존의 측면을 내포한다. 이는 새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실존적 소외를 해결할 힘을 얻는다는 티리히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거하심과 인간의 새존재에의 참여를 통해 실존적 소외를 해결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영적으로 실존적 소외를 이해하고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섯째,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이차적 소명은 타인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는 대인관계적 소외를 이해하는 관점을 전환해 준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존적 소외에 대한 이해의 관점은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지명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Calvin, 2003: 272)을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무한한 자유와 자유로 인한 선택과 책임의 무게가 주는 두려움(Cooper, 2014: 61)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에 확증은 자유와 선택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실존적 소외로부터 존재를 자유하게 한다.

이러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실존적 소외를 치료적 관점과 접목시켜 볼 수 있다. 실존치료적 접근법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관계에 대한 이해도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진솔한 또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은 공통적이다(van Deurzen, 2002; Yalom, 2007; Farber, 2010; 권석만, 2012). 실존의 특성 상 doing 보다는 being이 중요(이미정, 2011)하므로,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진실성과 진정성(genuineness, authenticity, integrity, congruence)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presence’(실재함 또는 함께함)가 중요(Schneider, 1998; Cooper, 2014)하다. 진정한 만남은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부름이다. 이러한 진정한 만남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즉 실존을 이해함으로써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자기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도울 수 있다(Schneider, 1998; van Deurzen, 2002; 권석만, 2012). 로저스(Rogers)는 상담자의 ‘존재 방식’ 즉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주은선, 2009: 46-49)고 보았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실존적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진정성 있는 관계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독특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실존적 소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지명하여 부르심이 기독교적 실존에 대한 특성과 방식을 보여주는 메타포임을 논의하고 존재를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 명명하였다.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존재는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 실존적 소외가 해결된 새존재에 참여한 새로운 존재이자, 여전히 실존적으로 소외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또한 지명하여 부르심은 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해야 할 일차적 소명과 존재함으로써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이차적 사명을 내포하고 있다.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자기 삶을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기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실존적 소외에 직면하도록 도와야 한다. 털리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살아가는 힘이 용기이고 이 용기가 신앙이라고 주장했다(Tillich, 1956: 87-90). 이 용기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삶에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이 될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의 소명은 타인과 세상과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소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함임을 설명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소외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준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 양쪽 측면에서 모두 찾도록 도와야 한다.

앞서 연구자들은 논의를 통해 지명하여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실존의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거하심(presence)은 being there, being in the place를 의미하고, 이는 현존재가 의미하는 ‘거기 있음(being present, being in the world)’(Seligman, 2001: 238)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거하심과 거기 있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이 가능하다. 실존치료 이론들 또한 상담 관계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실존적 만남, 즉 서로의 실존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성립되고 실존과 실존의 실재함(presence)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chneider, 1988: 111-112).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하심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실재함이 치유를 위한 실존적 만남과 연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임상적인 실재에 대해서는 차후 경험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볼 때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실존적 조건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의 무한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틸리히의 주장처럼 인간 존재의 기반(ground)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즉,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새로운 존재로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이며 실존적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수용할 수 있는 초월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초월상담 이론(김용태, 2014: 201-240)과의 통합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존재가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소외되거나 타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최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존재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외로 인한 자신의 고통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독교인이 실존적 소외에 직면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로서 확신을 가지고 일차적, 이차적 소명에 집중할 때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석만 (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김경행 (1990). 『이사야 II』. 서울: 성서연구사.
- 김명현 (2011).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 Gustav Dreifuss와 Judith Riem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원.
- 김미진 (2002). “노인자살 원인으로서의 소외에 대한 분석과 소외 극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용태 (2007). “초월의 기초로서 실존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 100-125.
- _____ (2014).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사례보고서』. 서울: 학지사.
- 김 옥 (2002). 『문학을 위한 변명』. 서울: 문예출판사.
- 김진규 (2012). “아브라함의 복의 세 가지 구속사적 의미와 이의 현대 설교예의 적용.” 『개혁논총』. 24. 9-39.
- 박찬국 (2014).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서울: 그린비.
- 박태범(2002). “구약의 신명 계시에 관한 기초신학적 연구.” 『카톨릭 사상』. 26. 103-132.
- 손명곤 (2014). “A. 로세프의『이름의철학』: 그 현상학적 배경과 방법론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1. 499-518.
- 송기득 (1986). “실존적 소외는 어째서 ‘그리스도’를 요청하는가 - P. Tillich의 그리스도론과 그 문제.” 『목원대학교-논문집』. 10. 5-23.
- 안치용 (2008). 『지식을 거닐며 미래를 통찰하다』. 서울: 리더스북.
- 윤석성 (1997). “김춘수 시의 상징주의적 해석.” 『한국어문학연구』. 32. 429-455.
- 이진홍 (1981). “김춘수의 꽃에 대한 존재론적 조명.” 『한민족어문학』. 8. 179-190.
- 이기문 (1980).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2권』. 서울: 기독교문화사.
- 이상현·강기수 (2004). “인간 해명의 실존적 근거- M. Heidegger 현존재 개념의 실존적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15. 1-17.
- 이병철 (1992). 『토브성경주석 창세기 I』. 서울: 브니엘출판사.
- 임현만 (2009).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3. 37-69.
- 정명자 (1944). “실존적 만남과 기독교적 만남.” 『광신논총』. 6(1). 215-236.
- 정성민 (2004). “틸리히 신학에 있어서의 소외 문제와 그 해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41-267.

- 정인찬 (1980). 『성서대백과 사전 제 6권』. 서울: 크리스찬위즈덤.
- 최은영 (2015).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 서울: 햇불트리니티출판부.
- 최홍춘 (2004). “Paul Tillich의 실존적 인간심리 분석에 의한 성령공동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하경택 (2003). “야곱의 씨름.” 『교회와 신학』. 55. 82-92.
- _____ (2011). “아브라함의 소명(召命)과 이스라엘의 사명(使命): 창세기 11장 27절 ~12장 20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1. 35-62.
- 홍성훈 (2009). 『다중지능 혁명』.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Buber, Martin (2004). *I and Thou*. London: Continuum.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ume1.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역 (2009). 『기독교 강요 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Coe, J. H. and T. W. Hall (2010). *Psychology in the Spirit: Contours of a Transformational Psych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Cooper, M. (2003). *Existential Therapies*. 신성만 · 가요한 · 김은미 역 (2014). 『실존치료』. 서울: 학지사.
- Corey, G. (1982).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오성춘 역 (1992). 『상담학 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Elwell, W., and A., Beitzel ed. (1988).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Frankl, V. E. (1967). “Logotherapy and Existentialism.”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3). 138-142.
- Freidmann, M. (1988). *Martin Buber's Life and Work*. Michigan: Wayne State Universtiy Press.
- Goldingay, J. (2005). *The Message of Isaiah 40-55*.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 Knight, G. (1984). *Isaiah 40-55: Servant Theology*. Grand Rapid: The Handsel Press.
- Kripke S. (2014). *Naming and Necessity*. 정대현 · 김용주 역 (2014). 『이름과 필연』. 서울: 필로소픽.
- Motyer, J. (1993).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wo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Oswalt, J. (1996).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chneider, K. J. (1988). *Existential Process, in Handbook of Experiential*

- Psychotherapy*. Greenberg, L. S., and J. C. Watson and G. Lietae ed. NewYork: The Guilford Press.
- Seligman, L. (2001). *Systems, Strategies, and Skill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Jersey: Merrill Prentice Hall.
- Tillich, P. (1956). *The courage to b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Systemetic Theology II*. 서울: 성광문화사.
- Van Deurzen, E. (2002). *Existential Counseling & Psychotherapy in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
- Wenham, G. J. (2001). 『WBC 창세기 하』. 서울: 솔로몬.
- Westermann, C. (1987). *Genesis: Een Praktische bijbelverklaring*, vol I, II. Grand Rapids: Williams Eerdmans Publishing.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임경수 역 (2007). 『실존주의 심리 치료』. 서울: 학지사.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Existential Alien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View: focused on “Called by Name”

Eun-Mi Kim (TorchTrinity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Kye-Yeon Kim (TorchTrinity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Yong-Tae Kim (TorchTrinity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istential alienation from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Existential alienation is real and it is one of the existential conditions inevitably experienced. Despite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yet Christians experience the existential alienation as well. However, there has been few studies on understanding of the existential alienation from the Christian counseling view.

For research, metaphor of Isaiah 43:1 “called by name” is used for representing the way of existenc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called by name” the researchers named Christian as ‘the being of called by name.’ As the being called by name, the Christians have been already out in the existential alienation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New Being of Christ, but still have the nature to experience existential alienation.

Christians are to acknowledge and confront the reality of such a existential reality, to clarify the new identity as the participants of the New Being and it may lead them to be faithful to act as a path of blessing rather than trying to solve their suffering due to alienation through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Christian counselors are to help the clients to confront their existential alienation and to be focused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vocation.

Key Words: Existential Alienation, Existential Therapy, Called by Name, Name, Christian Counseling